

한국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적 회고*

Reviews the Hist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orea

김 영 연**

Young-Youn Kim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영유아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난 110여 년 간의 유아교육역사에서 드러난 음악교육의 역사를 회고하였다. 유치원교육과정, 관련도서, 간행물과 특별한 사건을 변곡점으로 사진자료와 함께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동기(1910년대 초~1970년)에는 최초의 석사논문 발행 외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도약기(1971~1999년)에는 자료집, 전문도서와 학술논문 발간, 음악연수 실시 등 유아음악교육 발전에의 노력이 활발했으며 팽창기(2000~2019년)에는 다양한 전공과 학위취득 경로에 따라 연구물이 양산되었다. 2019년 이후 재도약기에는 영유아음악교육의 학문적 전문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접학문과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예견되었다.

주제어: 한국영유아음악교육 역사, 영유아음악교육 발전, 영유아음악교육 연구, 영유아음악교육 교육과정, 사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hist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past 110 years. By researching relevant literature with pictures, the representative things or events like the proclama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the teacher training workshops, and the publication of the professional materials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were selected as remarkable historical points. As a result, the whole history was divided into four terms: First a birth period from 1910s through 1970, the second an attack period from 1971 through 1999, and the third a quantitatively blooming period from 2000 through 2019, and the period of rebirth from 2019 and future.

Key words: Korea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history,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development,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research,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curriculum, pictures

* This paper partially includes the keynote speech presented by the author in the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Conference held at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in Sept. 2019.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ykim@silla.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1.01>

I.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1900년대 초 전후에 걸쳐 만5세 학령전 유아를 대상으로 설립됨을 계기로 한국의 유아교육이 본격화되었다(Lee, 1987). 또한 만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은 시대 흐름에 따라 농번기 새마을유아원, 선교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어린이집으로 발전해 왔다(Yang, 2015). 이상 한 세기를 넘는 장구한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오늘날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만0세~5세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과 교육의 장이다. 따라서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 재교육도 보육과 교육이라는 동일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음악은 20세기 초 유치원 설립 초기부터 빼 놓을 수 없이 지속적으로 실천된 교육내용의 일부이고 영유아교육 연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살펴보면,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공시된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학술 단체는 무려 50여개나 되고 2019년 11월 현재, 영유아보육, 교육관련 등재학술지의 수는 23개이며(http://www.nrf.re.kr/biz/journal/ivew?menu_no=13) 학회가 발행하는 논문편수 기준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최근 3년간의 논문 수는 년 평균 100편 정도이다. 유아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열린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학논집, 아동학회지(*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가 이에 해당된다. 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회는 한국교육학회의 분과로 출발한 한국유아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로 이는 1975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에 앞장 서 왔다(Kim, 2003).

한국유아교육학회 초대학회장을 지낸 이상금은 2005년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였는데, 한국유아교육학회는 유치원교육학회가 아니라는 점과 유아교육학회는 유아에게 올바른 돌봄과 가르침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영유아교육이란 실천의 목적과 대상이 같으므로 보육과 교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이러한 특성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의심의 여지없이 공존해 왔으므로 영유아교육의 중심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돌봄과 교육이 동일개념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무행정부처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두 가지 형태의 영유아교육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보육과 교육이 마치 별개인 듯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이상금은 이 자리에서 결코 이 두 기관은 본질상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우리나라 영아와 유아에게 생애초기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동일한 성격의 책임기관이라는 점이 반추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영유아교육의 정체성이 확인되어 관련 제도를 통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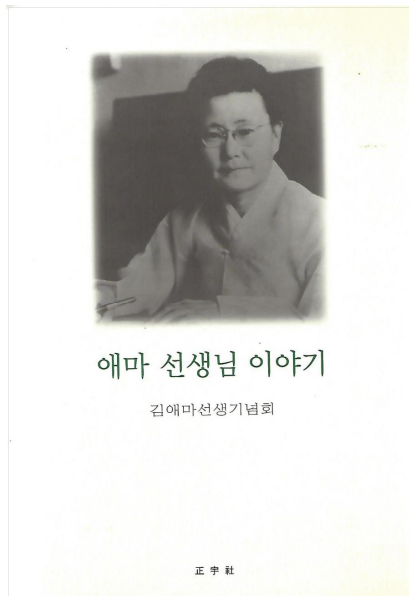
나갈 것을 암시하는 강연이었다(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5).

이렇게 유아에게 있어서 돌봄을 통한 교육, 교육에서의 돌봄이 지니는 의미는 불가분의 관계로, 기관형태 및 명칭과 무관하게 교사는 영유아의 마음을 해석하여 영유아가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유아음악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영유아교육의 특성상 통합적 접근이 강조되므로(Gordon, 2013) 음악교과에 대한 교과지식과 내용은 교사교육에서 반드시 전문적으로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유아가 곱고 바른 심성을 갖춘 건강하고 행복한 호모 아르테(Homo Arte)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자라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의 생각이 필요하다. 하나는 아름다운 정서, 따뜻한 마음, 평온한 영혼과 관련되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유아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이다. 아름다움을 키우고 심신의 조화를 꾀한다는 교육의 목표는 고대 희랍의 플라톤 시대로부터 강조되어 왔고, 우리 선조들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교육의 이정표로 제시했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교육목표로 지, 덕, 체의 함양 외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창의적 인재의 육성과 인성교육을 유달리 강조한다. 이는 음악이 인성교육과 긴밀히 연결됨을 의미한다. 음악교육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동과 배려, 존중과 양보 및 상호이해라는 인성교육목표에 도달하도록 유아를 돕는다(Jung, 2015; Peterson et al., 2004).

한편 유치원교육의 창시자 독일의 프뢰벨은 일찍이 놀이를 통해 풀어가도록 강조하였고, 소아과 의사이자 유아교육자인 이태리의 몬테소리는 유아의 마음읽기를 통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며, 비고츠키와 같은 심리학자는 서로 도우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생각과 행동에 자유로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기르도록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교육과 직결되는 그들의 교육사상은 유아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Dewey, 1934, p. 979; Gardner, 1983; Shin, 2003) 아울러 영유아에게 음악활동은 즐거워야하고 상상력을 자극해야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게 해야 한다. 즉 음악은 소통이다. 소통의 활동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함께도 가능하므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혼자의 그리고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유아가 일상생활 중 예술적 경험을 극대화하도록 이끌어주는 영유아음악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백년 이상의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의 역사에서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영유아음악교육의 위상은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음악을 통한 교육의

가치와 의미 찾기라는 회고의 과정을 통해 미래 영유아음악교육의 방향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Mark, 1986; Kim, 1999).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간된 유아교육 및 음악교육 관련 문헌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참고로 지나간 우리나라 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Figure 1] Book on *prof. Aema's story*



[Figure 2] Small concert(1986)
Small concert with melodion ensemble for winter vacation in December.



[Figure 3] Singing children with a teacher



[Figure 4] Childre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to celebrate a friend'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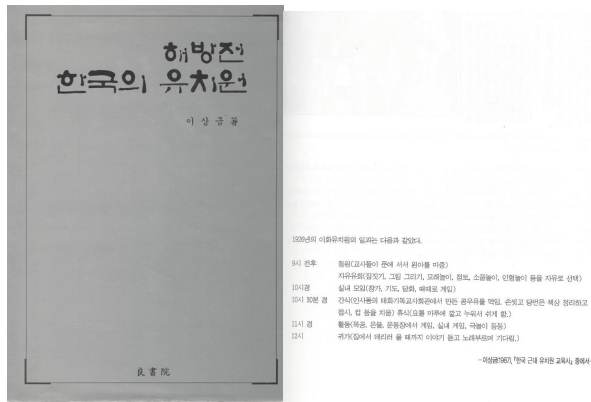
[Figure 5] Listening to music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Eun-jae Jeon, a student-trainee teacher, at the back of the drawing board).

위의 사진들은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의 지나간 역사를 짐작하도록 돕는다. 일찍이 우리나라 유아교사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이화여대 보육과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김애마[Figure 1]를 중심으로 이상금, 이은화, 이정환[Figure 3]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발전은 1914년에 설립된 이화여대 부속유치원의 아동 중심교육과정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이미 약100년 전 설립 초기부터 이화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유아가 즐겁게 노래 부르도록 했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은[Figure 2,3,4,5]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Ewha kindergarten, 2014) 오늘날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Kwon et al., 2018). 되돌아보면 일제강점기 동안 유치원에서는 우리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할 수 있어서 민족교육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지고 했는데(Lee, 1987), 현 시대는 중심 학력경쟁의 시대, AI의 등장,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질주하면서 유아교실 현장도 변화하고 있다.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아노가 사라지고(Sim et al., 2012) 대신 앱이 깔린 모니터와 교사의 스마트폰이 주된 음악교수매체가 되었다(Lee, 2019). 게다가 AI와 VR이 마치 일상용어가 된 오늘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알파로는 변호인단을 이기는 정보와 과학문명의 홍수 시대에, 영아가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 스마트폰 화면을 움직이는 모습은 흔히 발견된다(Mo, 2017). 미래사회의 예술교육 과제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창하는 창의인재 양정도 예술로 풀어야 할 주제이다. 회고하건데 창의성이 갑자기 등장한 용어는 아니지만 시대적 변모에 따라서 창의성 발달을 증진하는 음악교육의 방향은 더욱 새롭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Bruner, 1995; Davis, 2008), 나날이 거칠어져 가는 이 시대에 인성 함양 방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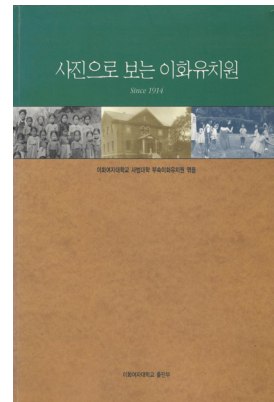
이에 인간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의 생각과 표현을 자유롭게 도와주는 예술교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석학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최근 이어령은 4차 산업시대의 시대적 과업은 정보과학을 조정하도록 하는 인문과학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할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였다(http://www.youtube.com/watch?v=8mxExGpza_8). 그는 매우 이성적인 과학문명 기기를 매우 감성적인 인간이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4차 산업발달이라고 이야기하며 인류의 문명가치를 유지한 건전한 과학 발전을 제안하였다. 바로 여기에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발포된 이래, 다행스럽게도 영유아기로부터 시작하는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실행 중이다(INGs Culture and Art Education Institute, 2018, 2019). 그러나 영유아 대상의 예술교육은 한층 더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과거를 회고하며 미래를 향한 교훈을 얻는 일은 의미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10년 전후 유치원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음악은 늘 유아

결에 있어왔다. 그러나 교실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과연 우리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그 음악이 예술작품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교수매체로 사용되었는지, 교실에서의 음악이 혹시 음악 아닌 소음은 아니었는지, 교사는 음악으로 영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영유아에게 음악이 즐거웠는지, 영유아가 생각하는 음악을 우리도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지, 과연 영유아에게 음악은 무엇인지 등등 이상의 주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영유아음악교육 연구는 그다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ure 6] *History of Korean kindergarten prior to the Korean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ublished by Lee, S. K., 1987



[Figure 7] *Ewha kindergarten looking through the pictures of ninety years history* published by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14

[Figure 6]는 해방 전 한국의 유치원 실태 및 유아교육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사서이고, [Figure 7]은 1914년에 설립된 아동중심유아교육의 산실인 이화유치원의 90년 역사를 기록한 문헌이다. 여기에 수록된 바에 의하면, 최초의 유치원이 1910년 전후 설립되었으나 교육과정 지침이 없다가 국가수준의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1968년에 공포되어 음악은 예능생활영역에 포함시켰고, 추후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정서 또는 정서발달영역, 표현생활영역에 포함시켰다. 1980년대 어린이집의 양적 확산을 계기로 1991년에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2004년에 제7120호에 의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우리나라 보육과 교육의 양대 법률적 축을 이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Ku, 2017). 특히 유보통합의 상징적 특징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누리과정(Song, 2017)에서는 만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예술경험영역에서 음악을 다루는데, 마찬가지로 만3세 이하 영아 대상의 표준보육과정에서도 음

악은 예술경험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100년 전부터 유치원에서는 음악을 유아의 하루 일과 중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1987년 발간 이상금의 「해방전 한국의 유치원」[Figure 6]은 방대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역사서인데 여기에서는 1920년대 모유치원의 하루일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당시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9시 전후에 등원하여 유아는 집짓기, 그림그리기,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유유희 시간을 가졌고 10시부터 시작되는 실내모임 시간에는 창가, 기도, 담화, 게임을 하였으며 11시부터 목공, 은물, 게임, 극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12시 귀가시간에 데리러 올 때까지 유아는 이야기 듣고 노래를 부르며 기다리는 일과를 따랐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유치원에 와서 집으로 가기 전 시간까지 유아는 매일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다. 유아교사양성기관에서는 기악과목을 개설하여 예비교사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지도 할 수 있도록 교수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사는 악기 대신 영상매체에서 나오는 기계음으로 수업하는 시간이 늘면서 유아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는 점차 사라지는 실정이다(Chung et al., 2007). 만약 현장에서 영유아가 부르는 노래 등 음악이 사라질 경우, 교실환경이 유아인성발달과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우선적으로 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를 회고하였다.

II. 우리나라 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를 태동기(1910년대 초반~1970년: 약 60년) 도약기(1971~1999: 약 30년), 팽창기(2000년~2019년: 약 20년) 및 2019년 이후의 재도약기로 구분하였다. 지난 110년간의 영유아음악교육의 흐름의 기간 구분의 근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유아교육과정에서의 음악의 위치, 음악관련 교사 교육기관 및 연수 여부, 영유아음악주제의 학위논문의 발간 시기, 관련학회 및 논문게재 학술지의 종류와 양, 그리고 대표적 영유아음악 교재의 유무이다. 이의 관련 자료 사진을 참고하여 우선 다음 세 개의 기간으로 구분된 지난 110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 이후를 영유아음악교육 발전을 향한 재도약기로 삼아 미래 영유아음악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태동기(1910년대 초반~1970: 약 60년)

연구자는 우리나라에 아동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20세기 초반부터 유아음악관련 최초의 석사학위논문이 나온 1970년까지의 약 60년을 영유아음악교육의 초기로 간주하고 이를 태동기라 명명하였다. 1914년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이화유치원에 1919-1920년간 다녔던 김은우(Kim, E.U.)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유치원에서 보낸 시간은 공부 대신 실컷 놀게 해 주었던 행복한 시절이었고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사고력, 구성력 향상에 도움을 준 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1). 이 시기에는 등원하여 하원할 때까지 음악이 공존했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정 유치원교육과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유치원과 가정에서 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했는데 가정에서는 음악을 장차 자라날 유아에게 제공할 만한 교양교육으로 여겼고 유치원에서는 노래지도나 동작활동을 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 중심의 음악활동을

주로 하지만 딱히 마땅한 유아음악교재는 없었다.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후 50여년이 지난 1968년에야 문교부에서는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포하여 음악을 기능 강조의 예능생활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사용할 만한 음악교재도 없었는데 때마침 예비유아교사를 지도하던 음악과 출신의 교육대학원생 김성렬(Kim, 1970)이 유치원에서 부르는 노래의 곡 분석이라는 연구주제의 석사학위 논문 발간을 계기로 교육과정과 연동된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게나마 싹텄다. 이를 계기로 음률활동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한 현직교사 연수가 유치원교육협회 주도하에 실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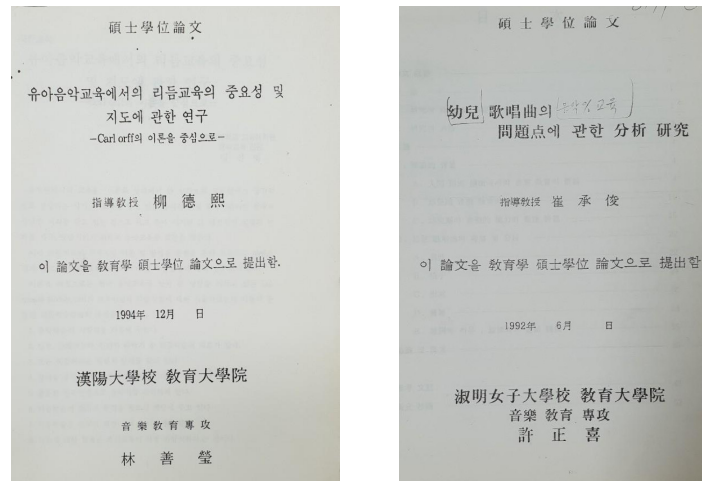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최초의 유치원이 설립된 1910년대 초부터 최초의 유아음악교육 석사학위논문이 발행된 1970년까지 약60년의 기간을 영유아음악교육 역사의 태동기로 정했다.



[Figure 8] An interview with Kim, En-Woo, an attendee at Ewha kindergarten in 1919, reported in a daily newspaper from *The Ewha Kindergarten looking through the pictures of ninety years history* published by Ewha Womans Univ. Press, 2001.

2. 도약기(1971~1999: 약 30년)

피아노를 전공하고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기악 교과목에서 피아노를 지도하면서 유치원 노래분석에 대한 연구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1970년에 발표한 김성렬에 이어 1978년에 제2차 유치원교육과정의 발표되었다. 음악은 이전의 기능 중심의 예능생활영역이 아닌 유아의 발달 중심 영역 일부로 간주되어 사회-정서, 또는 정서발달영역에 포함되었다. 당시의 음악은 음악성 발달을 이끌어내는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전이 매체로의 인식이 더 강했고 제3차와 4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유아의 생활중심으로 바뀌어 음악을 표현생활영역에 포함하였다. 종합하면 음악을 유아의 일상 경험으로 인식하여 유아 자신의 정서나 감정을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유아음악교육의 목표로 삼은 점은 바람직하였으나 학위논문의 경우, 1970년 김성렬의 발표 이후 10년이 지나기까지는 연구물이 전혀 없었다(Jang & Kim, 2017). 그러다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차차 석사학위논문의 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으나 연구주제는 아래 [Figure 9]에서와 같이 동요분석이나 오르프 이론 적용의 리듬교수법이 주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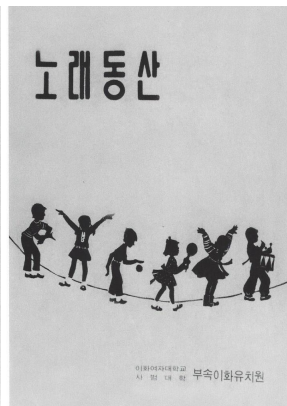
[Figure 9] Ma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Hanyang University an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ublished in 1980s.

한편 유아교육현장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자체적으로 서양곡 중심의 노래모음 곡과 춤곡을 수집 제작하여 유아들과의 음악활동에 적용하였다(Ewha kindergarten, 1992; Lee & Kim, 1992). 당시 아직 이렇다 할만한 음악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유아교육기관에서 는 이화유치원이 발행한 어린이노래모음, 노래동산 및 어린이 춤곡 자료집을 활용하기도 했다[Figure 10, 11, 12]. 놀라운 일은 지금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학부모의 음악 활동이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가야금을 연주하는 어머니를 모셔와 유아를 위한 국악 감상교육을 유치원에서 실시하였다 [Figure 13]. 시기를 맞추어 교육부에서는 「유아음악 교육 활동자료」[Figure 14]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고, 한국어린이교육협회에서는 음률활동에 관한 교사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음률활동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Figure 15].



[Figure 10]
Children's Song Collection
published by Ewha
kindergarten in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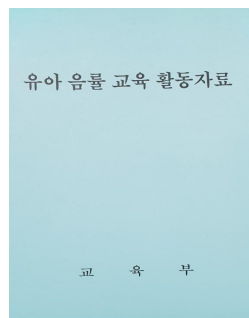
[Figure 11]
Song Garden published by
Ewha kindergarten in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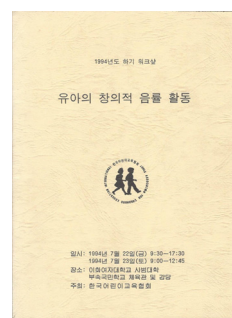
[Figure 12]
Children's Dance Music
edited by the teachers in
Ewha kindergarten in 1992



[Figure 13]
Children's music appreciation
performed by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named
Kayagum



[Figure 14]
*Children's music and
dance activity teaching
material* published by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i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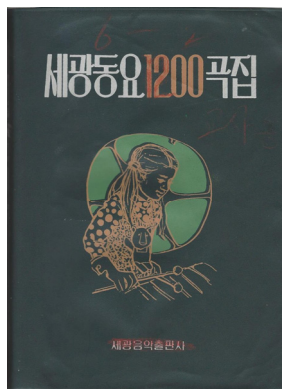


[Figure 15]
*Children's creative music
& dance activity teaching
material* published by Korea
Associ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in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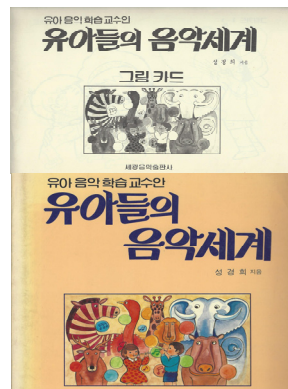
그러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보육과에서는 당시 유아교육과 음악교육 양 분야를 전공한 유아음악교육자는 아직 없었다. 또한 유아교육학이 오늘날과 같이 학문적으로 세분화되지도 않아서 당시 음악교사교육은 음악에 관심이 높은 유아교육과 교수가 두루두루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시대였다. 그러나 점차 교육대학원에서는 노래곡 분석이나 오르프 적용 교수법 주제의 연구 논문이 나오고, 현장에서는 노래곡과 춤곡 모음집이 발간되며, 한편 1980년대에는 여러 작곡가가 유아 대상의 동요를 발표하는 등 교수실천적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김숙경(Kim, 1980)은 「까치까치」 동요곡집을 발간하였고[Figure 16], 세광출판사(Sekwangmusic, 1983)에서는 1200곡 이상 방대한 양을 수록한 동요집을 발행하여[Figure 17]동요 보급을 도왔다. 또한 피아노를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음악교육 박사학위를 마친 후 미국의 K grade가 포함된 초등학교에서 초등음악수업을 담당하다 귀국한 성경희(Sung, 1987)는 유아에게 그림카드 놀이를 통해 음악적 개념을 지도할 수 있는 유아들의 음악세계라는 음악학습 교재안[Figure 18]을 선보임으로써 비로소 음악교육을 염두에 둔 놀이 교재를 개발하였다. 특별히 김성균(Kim, 1988)은 유아교육현장에 아주 잘 알려진 동요작곡가인데 그의 창작품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보급되면서 유아동요라는 세부 장르를 발전시켰다[Figure 19]. 그가 작곡한 “유치원에 갑니다.” “봄비”, “가을”, “하얀 나라” 등은 유아의 정서와 생활을 생생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부르는 곡들이다. 또한 임혜정(Lim, 1997)은 작곡가이자 유아교육과 교수로서 유아에게 적합한 리듬, 선율, 셈여림 및 음색과 형식의 음악적 특질을 갖춘 동요를 창작하여 유아의 음악성 발달에 적합한 음악교육 자료집 보급에 앞장섰다[Figur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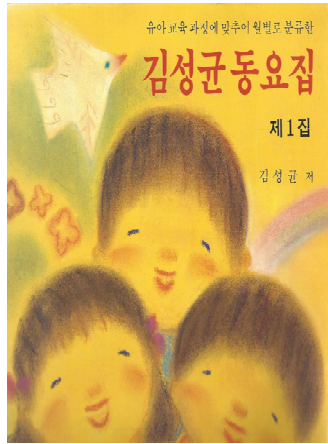
[Figure 16]
Magpie Magpi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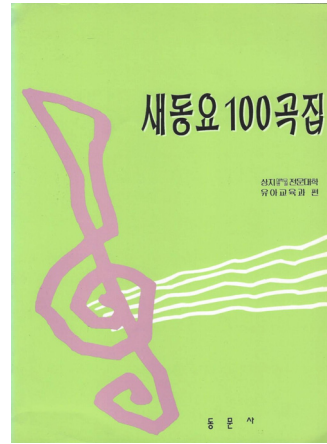
[Figure 17]
1200 Sekwang Children's Songs, 1983



[Figure 18]
Children's Music World, 1987



[Figure 19]
Children's Songs Vol. 1 by
 Kim, S. K., 1988



[Figure 20]
The New 100 Children's Songs composed
 by Lim belong to th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angji Technical
 College, 1997

198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일로서 사단법인 새세대 육영회(The Foundation for Adult & Infant)의 음악교수매체 개발 및 보급을 놓칠 수 없다. 새세대 육영회는 1980년대 전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가정의 양육구조 변화 양상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유아교사 재교육 및 유아교수매체 개발 목적의 기관이다(Yang, 2015). 이 기관에서는 1987년에 새세대 전래동요집 카세트테이프 및 전래동요 노래책 등 시청각 교재를 제작하여 전국의 유치원과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보급했는데, 마침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세계화가 강조되던 때였다(Kim, 2013). 1988년에 시행된 제4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도 글로벌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강조하였는데 이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최초의 유아음악교육사업이라고 해도 될 만하다. 자료집에는 옛날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달강달강”, “자장가”, “이 거리 저거리 각거리”, “앞니빠진 중강새”, “불불 불어라”, “아침바람 찬바람에”, “대문놀이”, “청어엮자” 등의 전래동요가 다량 수록되어 있어서 유아음악교육 교수내용으로 양성기관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정부산하 기관이 주도하고 국악전문가 한만용의 협조를 받아 제작된 교사용 활용지침서와 음원(The Korea association for the fostering and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 Collection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s for new generation, 1986, [Figure 21])을 유아교육

현장에 보급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었고 특히 사라져 가는 무형의 보물인 전래동요라는 음악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전승시킨 점은 영유아음악교육사에 기록될 만한 흔적이다. 아울러 사설기관 김성균 음악교육연구소에서 펼치는 유아교사 연수는 전국의 유아교육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주로 놀이로 음악활동을 하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Figure 21]

Collection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s for new generation produc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fostering and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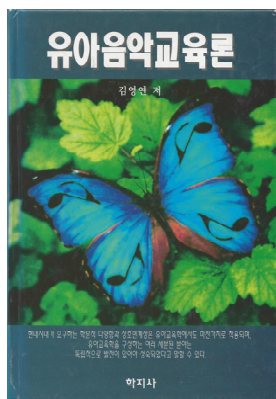
[Figure 22]

Proceeding of Korea Music Education Society Summer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teacher training in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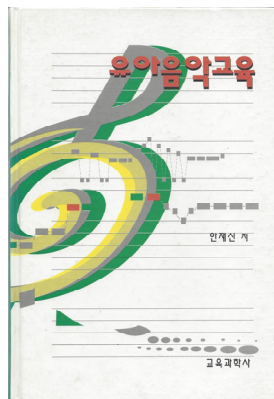
아울러 영유아음악 교사연수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괄목할만한 역사적 사건은 1999년에 개최된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이다(Korea Music Education Society Summer Conference, [Figure 22]). 전국의 초중등학교 음악교사와 음악교육 관련 교수들이 참석하는 50년 전통의 이 학회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수과정은 없던 차, 한국음악교육학회 1999년 여름학술대회에서는 전국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아음악워크숍을 획기적으로 처음 개최하였다. 잠시 그 당시를 회고해보면, 1999년 본 워크숍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 경기, 대전, 공주, 인천 소재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음악교육을 담당하던 5인 교수의 준비단이 결성되었고, 그 당시 유아교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교수법 보급을 주제로 달크로즈 교수법의 유승지, 오르프 교수법의 조순이, 코다이 교수법의 이영미가 강의했다. 당시 학회에서 급히 결정한 사안으로 짧은 기간에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0여 명의 유아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의 대형 강의실 세 곳에서 이

틀간 유아음악 교사연구회를 역동적으로 진행하였다. 유아교육가가 처음으로 학회에서 개최하는 음악교육을 받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던 워크숍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유아음악연수를 필요로 했는지 알게 하였으며 그들의 유아음악교육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단한 행사였다. 아마도 그 날의 워크숍 이후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교수법이 우리나라 유아교사와 현장에 알려지기 시작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영유아음악교육사에 기록되는 학술대회였다. 그런데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음악교수법에 대한 왜곡이 아직도 쉽게 발견되므로 이제 보다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Kim, 2008; Bang,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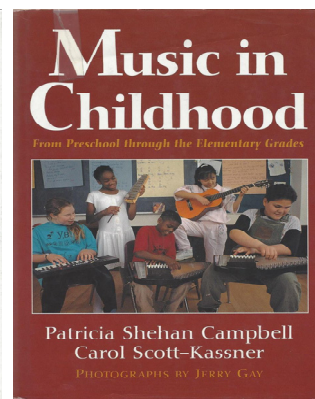
이렇게 단기간에 준비한 대규모 워크숍을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한 원인으로서는 유아교육자들의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우선 꼽을 수 있겠으나 1996년에 발행된 유아음악교육 전문도서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1999년 당시 유아교사연구회 준비위원이었던 김영연과 안재신의 “유아음악교육론(*Theor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gure 23]과 “유아음악교육(*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Figure 24]은 이후 활성화될 유아음악교육 관련 석,박사 논문과 교재에서 참고문헌으로 활발하게 인용되었다. 1980년대까지 유아교육계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된 이은화, 김영희의 번역서 “유아를 위한 음악교육” Barbara Andress의 「*Music experience in early childhood*」와 이기숙, 김영주의 번역서 “유아음악교육” Marvin Greenberg의 「*Your children need music*」과 함께 새롭게 발간된 전문도서 또한 영유아음악교육 역사의 일면을 장식하였다.



[Figure 23]
Theor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Y. Y. Kim
i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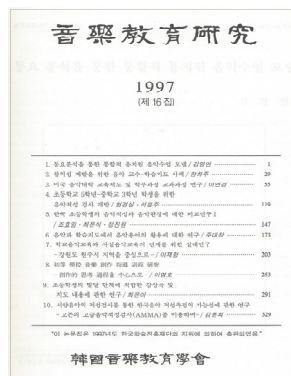


[Figure 24]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by J. S. Ahn
i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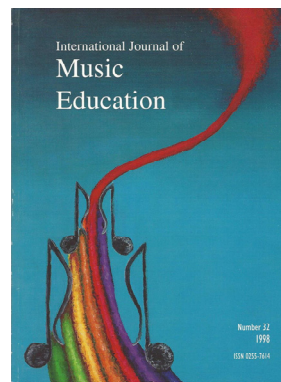


[Figure 25]
Music in childhood by
P.S. Campbell & C.
Scott-Kassner in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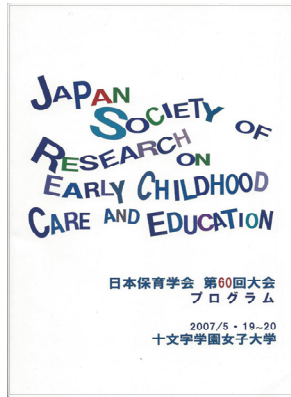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전공자들 간에도 유아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아교육 전공이 있는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학생들 사이에 유아음악연구 실천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들에 의해 발표되는 연구물은 대표적 음악교육 학술지인 ‘음악교육연구(*Kore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와 대표적 유아교육 학술지인 ‘유아교육연구(*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igure 26]에 실리면서 발표의 지경이 ‘아동학회지(*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미래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등으로 넓어졌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ISME, APSMER 등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도 관심을 두고 영국, 네덜란드, 아프리카, 스페인 등 학술 발표의 장을 따라 국제적 규모의 음악교육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상 탐구의 자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Figure 27, 28, 29]에서와 같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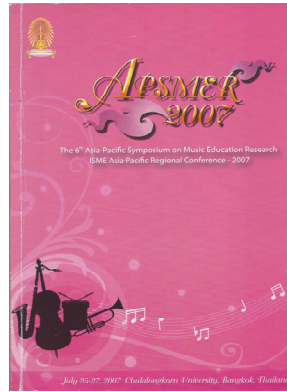
[Figure 26]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97



[Figure 27]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1998



[Figure 28]
Proceeding of Japan Society of Research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Conferenc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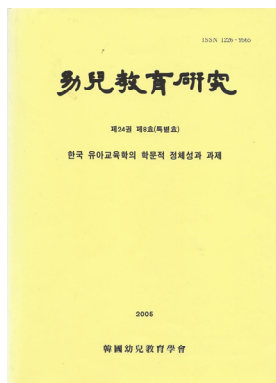
[Figure 29]
Proceeding of the 6th Asia-Pacific Symposium on Music Education Research ISME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held at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07

이 시기의 괄목할만한 사실은 유아교육과 음악교육 양쪽 분야를 모두 전공한 연구자들의 숫자가 음악대학으로의 편입이나 유학의 방법을 통하여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유아음악교육은 말 그대로 유아교육과 음악교육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학문영역이다. 따라서 양 쪽 분야의 전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학의 제도는 복합전공이 흔치않은 시대였다. 대학원 진학에서도 동일계열 전공이 우선시 되던 시절로서 학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만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이 가능했다. 그런데 덕성여대 대학원에서 음악대학졸업생을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입학을 허락하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로서는 진기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일로서 영유아음악교육사에 남을만한 반갑고 신선한 일이었다. 2000년 즈음의 일이다. 음악학과 음악교육학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음악교육 연구자의 배출(Lim, 2004)은 영유아음악교육학 발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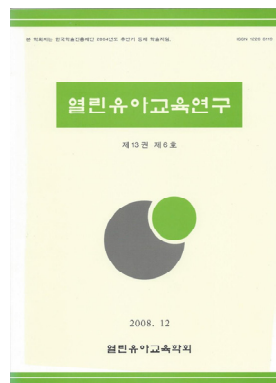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자는 학위논문 및 전문교재의 발간, 국가지원의 교수매체 개발 및 현장지원, 대규모의 교사연수개최, 국내외 전문학술단체 참여도 증가 등을 변곡점으로 삼아 1971년부터 1999년까지의 30년간을 우리나라 영유아음악교육 역사의 도약기로 정하였다.

3. 팽창기 (2000-2019: 약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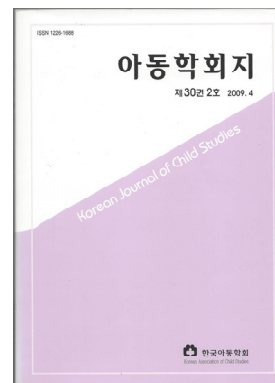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도 유아음악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내외 학회 참석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유아음악교육 전공의 상위학위 취득경로의 폭도 넓어졌을 뿐 아니라 관련 정보의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교육대학원 뿐 아니라 일반대학원의 유아교육전공자와 특수대학원에 소속된 유아교육, 음악교육, 교육(상담)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공자들은 유아음악교육을 주제로 하는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연구대상은 과거 음악곡 분석의 문헌 중심에서 추후 유아, 교사, 기관과 가정으로 확대되었고, 연구주제는 과거 주로 노래 부르고와 음률을 위한 교수법에서 추후 감상하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표현, 통합하기를 위한 교수법으로 확대되었다(Eom & Kim, 2018). 다수의 유아음악교육 연구가 “유아교육연구”[Figure 30], “열린유아교육”[Figure 31], “아동학회지”[Figure 32], “미래유아교육연구(*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등 주로 유아교육을 다루는 여러 학술지에까지 실렸으며, 도약기에 해당하는 1996년에 발간된 유아음악교육 전문교재와 1999년에 한국음악교육학회가 개최한 유아음악 교사연구회를 통해 소개된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고든 교수법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연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3-5세 대상의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에서도 감상하기, 음악극하기 등의 통합적 음악활동이 세부내용으로 강조된 것을 볼 때 연구결과가 현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기초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본다.



[Figure 30]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



[Figure 31]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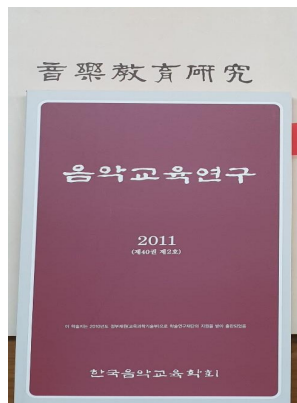
[Figure 32]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09

한편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이 유보통합을 향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Song, 2017) 반면 음악 관련 누리과정의 교육목표, 내용과 교수 방법은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Kim et al., 2017; Eom, 2015). 그런 점에서 유아교사의 음악교과 내용지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Yoon et al., 2015). 즉 음악교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영유아음악교육은 음악적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이에 기초한 유아가 실천 가능한 활동방법,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예술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실천되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유아음악교육은 유아교육은 물론 뇌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 전문가들과의 총체적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보고된 다양한 교육기관 소속 다양한 전공자들의 유아음악교육 연구는 양적팽창이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Figure 33, 34, 35)간혹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취약함으로 인한 해석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유아음악교육 교재나 논문에 기술된 음악이론이 부정확할 경우 아무리 많은 양의 연구물을 공유한다 하여도 이는 영유아음악교육의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주도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는 사업에 비전문가가 프로그램 심사나 평가에 관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실로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여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여러 학회가 모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사업을 열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온 사업인데, 금년의 주제는 영유아와 아동의 문화예술교육이었다. 여기에는 한국의 예술교육을 대표하는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음악교육공학회, 한국예술교육학회가 공동 참여하여 20여 편의 연구가 발표됐는데, 정작 유아음악교육가의 연구는 두 편에 불과했다(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al Technology, 2019). 영유아음악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발굴과 양성이 참으로 아쉬운 행사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20년을 다양한 경로와 배경에 의해 영유아음악교육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특징의 팽창기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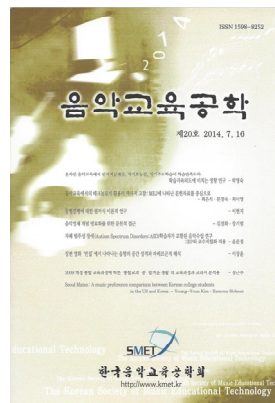
차 례	
1. 기악교육이교사의 연구동향에 발전방향	정희영, 이영옥, 이혜영 / 6
2. 유아 전통의 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	이현숙, 박정현, 김지영, 이준학 / 25
3. 영아발달 연구동향에 유아교육에서의 시사점	김희원, 김남숙 / 45
4. 영·유아 음악교육연구의 발달과정과 전망	김정현, 박정현, 윤선옥 / 71
5. 유아교육이론의 발달 및 원형	신동국, 윤지현, 유혜영 / 101
6. 유아과학교육학의 연구동향 및 발전전망	박정현, 김지영, 조영숙 / 123
7. 유아 발달 연구의 방법론 분석	박정현, 신지현, 정희영 / 149
8. 유아음악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서영희, 최지현, 임지숙 / 169
9. 유아교육학에 관한 연구 동향 및 과제	조부경, 임승원, 이경진 / 199
10. 유아교육 연구의 성과와 전망	김영숙 / 233
11. 유아교육 정책·법·제도 연구동향	이윤경, 이영옥, 유우주 / 259
12. 유아교육정책의 연구 동향 및 전망	최정현, 정지현, 유혜영 / 277
13. 유아교육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의 연구동향	홍미희, 정지현, 박희영 / 311

[Figure 33]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



[Figure 34]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11



[Figure 35]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008

4. 재도약기(2019년 이후)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영유아음악교육 발전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의 맥을 따라 여기에서 드러나는 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설립되어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뿌리가 내린 지난 110년 동안 음악은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교육내용이자 교육방법으로서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음악교육 역사의 변곡점은 무려 60년, 30년, 20년 간격으로 나타나 연구자는 이 기간을 태동기, 도약기, 팽창기로 우선 구분하였고, 이어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양적 질적으로 내실을 갖춘 발전의 시기를 기대하며 그 이후를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9년 이후를 우리나라 영유아음악교육 발전의 발전을 위한 재도약기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다행스럽게 뜻을 같이하는 유아음악교육연구자들이 모여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국영유아음악교육학회를 2019년 봄에 출범시켰다 [Figure 36]. 이미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된 한국영유아음악교육학회는 마땅히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영유아의 음악성 발달을 도와야 할 것이다. 영유아음악교육의 이론과 현장적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영유아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교수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사 대상의 전문 음악연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자면 주변 관련학회와의 교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반 활동은 영유아의 가정, 교육 현장, 지역사회, 교사양성기관, 정부 관련 부처, 국내외 학회와 긴밀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일상생활을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도록 돕는 영유아음악교육의 발전적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음악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인성을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교육 실천을 도울 것이므로 오늘날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영상매체와 앱의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영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미래로 향해야 할 것이다.



[Figure 36] Plancard informing the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conference held at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in Sept., 2019. The conference theme, "Retrospect the hist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to children's music teaching settings", is written in the middle of this material.

Ⅲ. 나가며

현재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음악은 아직도 주로 방과 후 특별활동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매일의 생활에서 교육내용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교실 내 음악활동이 담임 교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피아노가 사라지는 현장, 영유아의 노래 소리가 사라지는 현실은 매우 위협적이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기준에서 제외된 피아노나 전자피아노는 반드시 평가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유치원에서 공간이 비좁다고 복도로 내몰리는 피아노가 다시 교실로 들어와 유아의 음악교육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음악은 선택 아닌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영유아 교사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프로그램도 음악교육의 강화를 위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교실의 음악환경도 음악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비를 갖추어 재구성되어야 하고, 영유아의 음악성 발달과 직결되는 현상학적 연구와 유아의 음악성 발달의 변화 추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악교육 책임자로서의 유아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반성적 사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영유아교사의 적극적인 학회활동과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은 유아교사의 음악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필수 권장 사항이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유아교육이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영유아 음악교육 역사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았다. 언급된 영유아음악교육 역사 회고의 내용을 시대별 특징에 따라 축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 초부터 1970년까지의 60년간은 최초의 유아음악교육 석사논문이 발행된 유아음악연구의 태동기, 1971년부터 1999년까지의 30년간은 유아음악교육 자료집 발간, 교사대상 음악연수 실시,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 발간 등으로 교수실제의 다양화와 교수매체 개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도약기,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20년간은 다양한 전공과 학위취득의 다양한 경로를 배경으로 유아음악교육 연구가 여러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산된 연구의 팽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이후의 재도약기는 영유아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문적 전문성과 정체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요약된다. 바람직하기로는 각각의 기간이 교수실제, 교수매체, 연구의 세 차원에서 고루 발전되었어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9년 이후로 명명된 재도약기에는 학문적 연구발전의 균형 및 이론과 교육현장 실제 간의 균형을 목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럴 경우 영유아음악교육의 역사적 회고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겠다. 즉 기간별 영유아의 하루일과, 음악수업내용이나 분량 등의 교수실제 차원은 어땠는지, 사용교재, 악기, 동요 등의 교수매체 차원은 어땠는지, 학위논문, 학회발표, 학술지의 연구 차원은 어땠는지를 세분화하여 회고해 봄으로써 향후 영유아음악교육의 균형적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돌아봄이란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를 막론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Marinoff, 2003). 영유아음악교육 역시 학문적 이론과 교육적 실천의 간극을 좁혀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영유아음악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과 흐름이 합치되도록 노력하고 이상의 결과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적용되도록 돕는 교사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Reynolds, 2014). 이를 뒷받침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음악교육 역사를 되돌아 보기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이슈일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자료 수집 범위의 확대 및 수집방법의 다양화와 분류기준의 세분화를 제안한다. 문헌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음악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난 이야기를 들려줄 연구 참여자를 물색하여 심층 면담을 한다면 보다 풍성한 이야기와 논의로 미래를 이어주는 교훈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 Commemoration meeting for Prof. Kim, Aema (2003). *Book on Prof. Aema's story*. Seoul: Jungwoo Publishing Company Ltd.
- An, J. S. (1996).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APSMER (2007). *Apsmer 2007*, The 6th Asia-Pacific Symposium on Music Education Research ISME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 2007.
- Bang, E. Y. (2016). Exploration of conflict experiences among early childhood music instructor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7, 1-18
- Bruner, J. (1995). *Culture of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P. S., & C. Scott-Kassner, C. (1995). *Music in childhood from preschool through the elementary grades*. New York: Schirmer Books.
- Chung, M. R., & Choi, Y. K. (2007). The effects of form of accompaniment on young children's musical attitudes in kindergarten music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2(2), 5-25.
- Davis, J. H. (2008). *Why our schools need the art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Dewey, J. (1934/1979). *Art as experience*. New York: A Paragon Book.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97). *New 100 children's songs*, Sangji Technical College, Seoul: Dongmunsa.

Eom, S. A. (2015). *Analysis of the musical and rhythmic activities in the teacher's manual of nuri curriculum*. Master thesis, Silla University.

Eom, K. L., & Kim, Y. Y. (2018).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early childhood music listening educ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ses published in Korea.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7, 79-97.

Ewha Kindergarten (1992). *Children's song collec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_____ (1992). *Song garde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14). *Ewha kindergarten looking through the pictures of ninety years histor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INGS Culture and Art Education Institute (2018). *My friend CChuk CChugi*. Busan: Injeong Kiwhaek.

_____ (2019). *Click click with my friend CChuk CChugi*. Busan: Injeong Kiwhaek.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London: Fontana Press.

Gordon, E. (2013). *Music learning theory for newborn and young children*. Chicago: GIA Publication, Inc.

Jang, S. H., & Kim, Y. Y. (201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reported from 1988 through 2016 in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2), 103-130.

Japan Society of Research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2007). *Proceeding of the 60th Japan Society of Research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Conference*.

Jung, S. Y. (201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arly childhood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hrough music activitie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Kim, S. H. (2008). *Development of the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 curriculum model for pre-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Kim, S. K. (1980). *Magpie Magpie Kim Sook Kyung nursery rhyme anthology*. Seoul: Late publishers.
- _____ (1988). *Children's song collection volume 1 arranged by the monthly themes suggested in the Korean national early childhood curriculum*. Seoul: Kookminbooks.
- Kim, S. R. (1970). *Analytical study on songbooks for kindergarten songs in Korea*.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Y. Y. (1996). *The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_____ (1999).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 99-114.
- _____ (2013). Tradition and change in the musical culture of South Korean children. *The Oxford handbook of children's musical cultures*. (P. S. Campbell and T. Wiggins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19-433.
- Kim, Y. Y., Kim, K. S., Kim, B. H., & Lee, S. H. (2016). Analysis of the music activity plans in the Teacher's Manual of Nuri curriculum for three to five years old childre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8, 17-34.
- Kim, S. I. (2003). *Educational paradigm for a new cultural era: Conversational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cademic ident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ceeding of the Korea Socie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nual Conference in 2003.
- Kwon, O. S., Kim, Y. Y., & Yang, O. S. (2018). Development of the new song teaching program based on musical concepts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1), 1-35.
- Korea Association for Children's Education (1994). *Children's creative music and dance activity teaching material*.
-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2019). *Retrospect the history of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to children's music teaching settings*, Proceeding of KAECME Conference.
- Korea Music Education Society (1999). *To experience of the Dalcroze, Orff*

- and Kodaly teaching methods in order to apply to them to children in classroom.* Proceeding of Korea Music Education Society Summer Conference on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 teacher training.
-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09).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 Ku, J. J. (2017). *A Study on legal liability for child ab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 analysis of precedents.* Mater thesis, Silla University,
- Lee, E. H., & Kim, S. S. (1992). *Children dance music.* Paju: Hyungseul.
- Lee, S. K. (1987) *History of Korean kindergarten prior to the Korean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Lee, Y. O. (2019). *Teacher's perception and reality on the smart phone use during the classroom music activities in the child-care center.*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 Lim, H. J. (2004). *A research on the children's songs preferred in Korean kindergartens.*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University.
- Mark, M. L. (1986).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2nd ed.). Towson State University.
- Marinoff, L. (2003). *The big questions: How philosophically can change your life.* Bloomsbury Publishing PLC.
- Ministry of Education (1996). *Children's music and dance activity teaching material.*
- Mo, A. R. (2017). An Exploration of parental concern about infant's smartphone usage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8(4), 691-698.
- Peterson, C., & S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eynolds, A. M. (2014). Art, music, culture, preserving context, erasing borders. Culture, art, and music education. *Proceeding of the 45th Korea Music Education Society Summer Conference*, 3-16.
- Sekwangmusic. (1983). *1200 Sekwang children's songs.* Seoul: Sekwangmusic.
- Shin, H. S. (2003). *Montessori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Yangsowon.
- Sim, M. S., & Kim, Y. Y. (2012). Perception of the child care center director on the classroom utilization of piano.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3), 206-226.

- Song, K. C. (2017). A study on financial support system that integrat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based on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6(1). 27-44.
- Sung, G. H. (1987). *Children's music world*. Seoul: Sekwangmusic.
-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8). *The Journal of Korean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6).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Fostering and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1986). *Collection of traditional children's songs for new gener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5). Positioning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ceeding of the 30th KSECE Conference*.
- 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al Technology (2019). Music education science as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children. *Proceeding of 2019 world culture and arts education seminar among the related societies and associations*.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 Yang, O. S. (2015). Changes and prospects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nd policy changes and future prospect.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5 autumn conference*.
- Yoon, J. Y., Kim, Y. Y., & Yang, O. S. (2015). Development for measurement scal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early childhood mus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1). 141-165

[웹사이트]

- 이어령 (2019). AI(인공지능)시대 진짜 기독교가 시작된다. Retrieved August, 25,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8mxExGpza_8
- 한국연구재단(2019), 등재학술지목록. Retrieved November 20, 2019 from https://www.nrf.re.kr/biz/journal/view?menu_no=13

Received: 30 November 2019, Reviewed (Revised): 1 January (6 January) 2020

Accepted: 17 January 2020, Published: 29 February 2020

Young-Youn Kim: E-mail: yykim@silla.ac.kr

Professor, Silla University, 140, Baegyang-daero 700 beon-gil, Sasang-gu, Busan, Korea